

## ■ 월드컵 16강 경기 결과

## 獨 클로제-포돌스키 2골 합작

## ▲독일 2-0 스웨덴

막강 화력의 전차군단이 첫골을 떠뜨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 4골을 기록하며 득점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클로제는 스웨덴의 수비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틈을 타포돌스키에 득점기회를 만들어 줬다.

전반 4분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문으로 향하던 클로제가 날린 슛이 스웨덴의 골키퍼 안드레아스 이삭손에 막혀 뛰어나오자 달려 들어가던 포돌스키가 원발로 차넣어 골망을 훔쳤다.

두번째 골도 클로제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클로제가 전반 12분 폐널티지역 인쪽에서 잡자 3명의 수비수가 따라붙었지만 오른쪽으로 밀어주자 포돌스키

가 다시 원발슛으로 득점을 올렸다. 이번 대회 자신의 통산 3번째 골.

독일의 공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스웨덴은 엎친데 엎친 격으로 전반 35분 테디 뮤처치가 클로제에게 불필요한 반칙을 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스웨덴은 후반 추격할 기회를 잡는 듯 했지만 스스로 날려 버렸다.

후반 10분 헨리크 라르손이 폐널티킥을 얻어 자신이 직접 오른발로 슛을 날렸지만 볼은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갔다.

독일은 후반 29분 승리의 주역인 포돌스키를 빼고도 미하엘 빌라크 등의 위협적인 중거리슛으로 경기를 압도했고 라르손과 프레디에 융베리가 이끄는 스웨덴의 공격을 실점없이 암벽하게 막아냈다.

## 아르헨 로드리게스 '터닝슛' 8강 견인

## ▲아르헨티나 2-1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크레스포와 하비에르 사비올라가 이끄는 투톱 라인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멕시코의 중원 압박과 견고한 수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멕시코는 전반 6분 미드필더 오른쪽 지역에서 올린 과별 파르도의 프리킥을 미리 오 멘데스가 백해딩으로 뒤로 연결, 이를 리파엘 마르케스가 골 지역 왼쪽에서 넘어지며 오른발로 슈팅해 골문을 갈랐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바로 반격에 나서 만회골을 넣으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반 10분 상대 오른쪽에서 후안 로란 리케메가 올린 코너킥을 에르난 크레스포가 문전에서 절묘하게 오른발을

갖다 대며 동점골을 터뜨린 것.

기세를 올린 아르헨티나는 이후 막시로드리게스와 사비올라 등이 강력한 스팟팅을 날리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지만 '거미손' 오스왈도 산체스의 선방에 걸리거나 아쉽게 골문을 벗어나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극적인 결승골은 연장전에 터졌다.

연장 전반 8분 아르헨티나의 후안 소린이 미드필더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길게 크로스한 볼을 로드리게스가 폐널티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원발로 감아차 상대 골대 왼쪽 상단에 꽂아 넣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월드컵 소식

## 이영표 '탈락팀 베스트 11'에 선정

## 獨 월드컵 홈페이지

'초롱이' 이영표(토론탠)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팀에서 고른 '베스트 11'에 선발됐다. 독일월드컵 공식 홈페이지는 25일 "아쉽게도 16강에 오르지 못했지만 뛰어난 실력을 보여한 선수들도 '드림팀'을 구성해 이들에게 친사를 보낸다"며 11명을 선정했는데 이영표가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4-4-2 포메이션으로 짜여진 '탈락 드림팀'에서 이영표는 왼쪽 윙백 자리를 꿰차 프리미어리거로서의 기량과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영표와 함께 포백 라인을 구성한 선수는 에미뉘엘 에부에(크루디부아르), 로베르트 코바치(크로아티아), 네마냐 비디치(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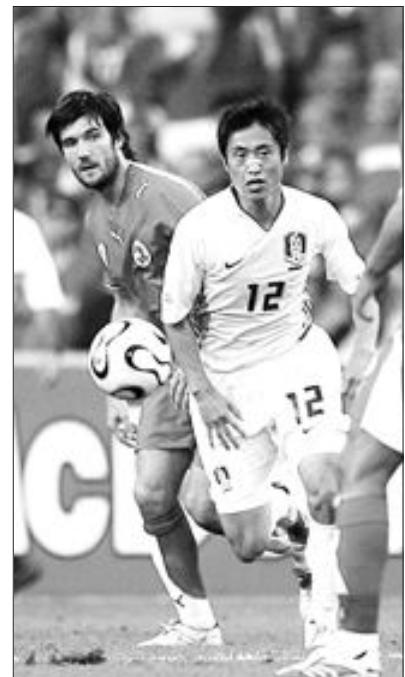
세계랭킹 2위 체코는 페트르 체흐(골키퍼), 폴 네드베트, 토마시 로시츠키(이상 미드필더) 등 3명이나 포함됐다.

미드필더진은 네드베트, 로시츠키 외에 나카타 히데토시(일본), 드와이트 요크(트리니다드토바고)로 짜여졌다.

'투톱'에는 디디에 드로그바(코트디부아르)-마테야 케주만(세르비아-몬테

네그로)이 뽑혔다. 홈페이지는 "이 선수들도 팀을 꾸린다면 월드컵 우승도 가능하다"면서 "이들의 플레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은 팬들에게 아쉬운 일"이라고 평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브라질 감독 '매직 4인방' 재가동

카를루스 아우베르투 파예이라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 '매직 4인방'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파예이라 감독은 이날 일본과의 경기가 끝난 뒤 처음 언론과 공식적인 인터뷰를 갖고 "독일월드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아드리아누, 카카로 이루어진 '매직 4인방'은 결승전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을 상대로 몸을 풀듯 가볍게 4대 1 대승을 거둔 브라질은 오는 27일 가나와의 경기에서부터 '매직 4인방'을 다시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예이라 감독은 일본전에서 후보선수들을 대거 기용한 것과 관련,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 KIA 장성호, 9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삼성 PAIVV 프로야구

## 통산 700타점 달성도… 팀은 한화에 3연패

2006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3연패의 늪에 빠졌다.

KIA는 25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2006 삼성 PAIVV 프로야구 한화전에서 장성호의 2점홈런과 대타 김경진의 솔로포에도 불구하고 마운드의 붕괴로 6-7로 역전패했다.

한화에 지난 23일과 24일 1점차(1-2, 1-

2)로 폐했던 KIA는 이날도 5-4로 앞선 8회

이범호에게 역전 3점 홈런을 허용, 3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스나이퍼' 장성호(KIA)는 투런포를 터트

리며 역대 10번째 9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통산 167개)과 역대 16번째 통산 700타점

을 동시에 달성했지만 팀의 패배로 그 빛을 잃었다.

5-3으로 앞선 6회 선발 전병우로부터 마

운드를 물려받은 윤석민은 3이닝 2안타(1홈런), 3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3승 2패 24이브.

KIA는 3회 장성호의 우월 투런포로 기선을 잡은 뒤 4회 김상훈의 좌전 적시타로 1점 을 보탰다.

KIA는 계속된 공격에서 이현근과 이용규의 연속 2루타로 2점을 더 달아나며 승부를 굳히는 듯 했다.

하지만 3회에 2점을 헌납한 KIA는 4회(1점)와 8회(3점) 한화의 이범호에게 홈런 2방을 내주며 역전 당했다.

KIA는 9회 대타 김경진의 솔로포로 1점

차까지 좁혔으나 승부를 뒤집기엔 뒷심이 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프로야구 중간순위 (25일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개막일	연속
1	삼성	37	21	2	0.638	-	3승
2	한화	34	26	1	0.567	4.0	4승
3	현대	33	28	0	0.541	5.5	1패
4	두산	30	26	2	0.536	6.0	1승
5	KIA	28	29	2	0.491	8.5	3패
6	S K	27	33	1	0.450	11.0	1승
7	롯데	23	34	1	0.404	13.5	1패
8	L G	22	37	1	0.373	15.5	3패

## 이승엽 12경기 연속안타

## 어제 주니치와 경기서 2루타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지만 팀의 패배로 그 빛을 잃었다.

이승엽은 25일 나고야돔에서 벌어진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3회 2사 1루의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좌완 선발투수 루이스 마르티네스의 몸쪽 낮은 직구를 잡아당겨 우선상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번째 2루타.

지난 11일 지바 롯데전 이후 12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간 이승엽은 계속된 2사 2,3루에서 후속 조 딜런의 중전 적시타 때 흠을 밟았다. 시즌 59득점째, 3타수 1안타로 타율은 0.335(269타수90안타)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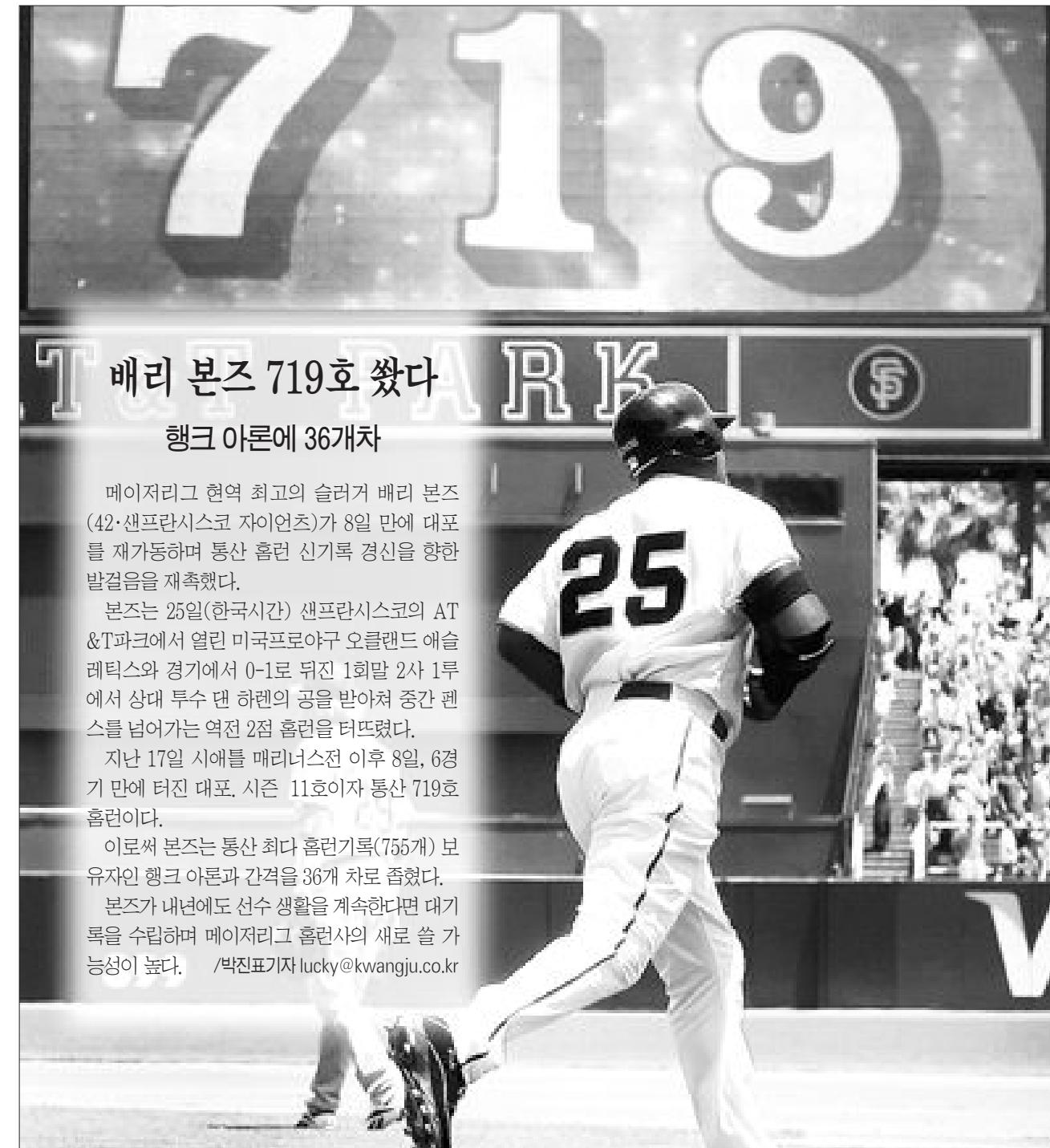
이승엽은 1회 2사 3루의 선취점 찬스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내 출루했다.

6회 1루 땅볼로 물려난 이승엽은 4-5로 따라붙은 7회 2사 1루에서는 중견수 뜬공에 그쳐 아쉬움을 줬다.

최근 프로답지 못한 플레이가 연발하고 있는 요미우리는 이날도 3루수 딜런의 어이 없는 실책이 벌미가 돼 6연패 수렁에서 헤맸다.

요미우리는 4-5로 추격한 7회말 수비에서 또 다시 2점을 내줘 결국 4-7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배리 본즈가 25일 샌프란시스코의 AT&T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1회말 역전 투런(개인통산 719호)을 터트린 뒤 1루를 돌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의 장정이 25일 미국 런던 캐스터힐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 사흘째 경기 17번홀에서 버디피트를 실패한 후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정 선두·김미현 공동 2위

## LPGA 웨그먼스 3R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 LPGA 사흘째 경기에서 한국 선수끼리 선두 자리를 바꿨다.

장정(26·기업은행)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버그의 록커스터힐골프장(파72·6천221야드)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쏟아내며 중간 합계 11언더파 205타의 성적표를 적어냈다.

2라운드까지 공동 8위에 머물렀던 장정은 이로써 전날까지 선두를 달렸던 안시현(22)을 밀어내고 단독 선두에 올라온 시즌 자신의 첫 우승이자 한국선수 8호 우승을 노리고 있다.

진클럽스 앤드리조트오픈 우승으로 부활의 나래를 활짝 펴 김미현(29·KTF)도 종간 합계 10언더파 211타 공동 19위로 떨어져 힘든 추격전을 벌이게 됐다.

올 시즌 6차례 톱10에 입상했지만 우승 트로피가 없었던 장정은 페어웨이를 단 한번 좋질 정도로 드라이브샷이 정확했고 퍼트 또한 안정됐다.

1,2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한 장정은 5번홀(파3)에서 15야드

짜리 어프로치샷을 흘에 떨어뜨리는 등 3라운드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다.

장정은 "출전 선수 모두가 이 코스에 익숙해 있어 최종 라운드에서 더 좋은 스트로크를 내야만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 유선영(20)도 8언더파 208타를 공동 4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고 한희원(28·필리핀)과 이선화(20·CJ)도 6언더파 210타로 공동 13위에 올라 상위권 입상을 노리고 있다.

한편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우승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박세리(29·CJ)는 2오버파 218타로 공동 63위까지 떨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